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131)

2차보고서 무엇을 담았나 ②송악산 해안·외륵 동굴진지
특공기지·거대 지하호... 무관심 속 방치·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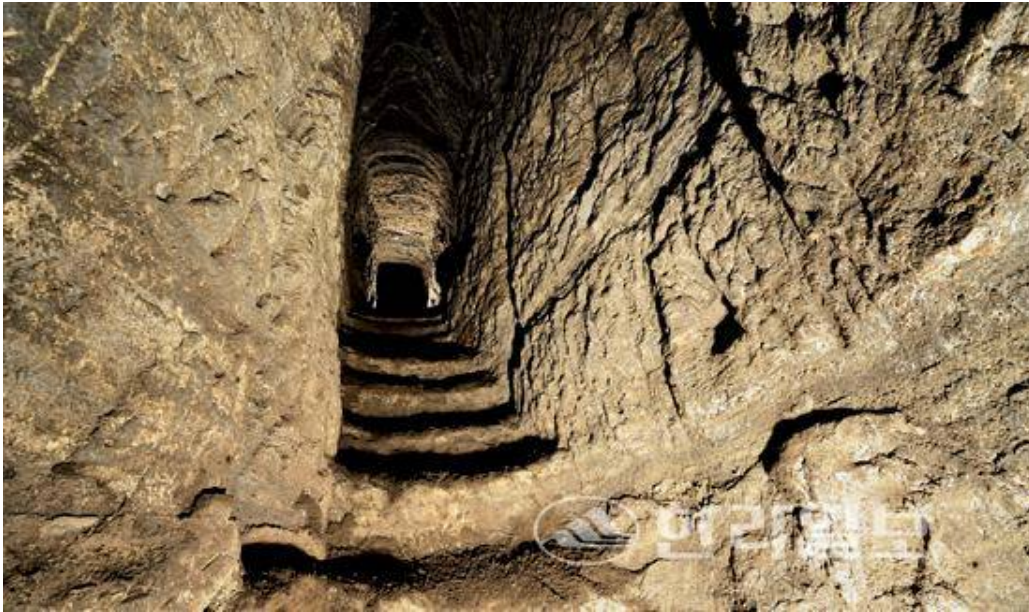
입력 : 2009. 07.23. 00:00:00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특공기지로 구축된 송악산 해안에 남아있는 유도로 시설. /사진=이승철기자

미군 등 상륙 대비 결7호작전 최전선에 위치 지속적인 훼손·함몰 우려... 관리 사각지대

모슬포 송악산 일대는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주요 군사시설이 밀집된 곳이다. 송악산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서남부 해안 일대는 미군 등 연합군의 가장 유력한 상륙예상지점으로 점쳐졌다. 반대로 일본군으로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할 결7호작전의 최전선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일대에 지하 진지와 벙커시설, 특공기지, 고사포진지, 일본 해군항공기지인 알뜨르비행장 등이 집중된 것은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다. 송악산 해안 특공기지가나 송악산 외륵 동굴진지는 일본군이 제주도에서 전개하려던 결7호작전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곳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일제 침략상을 상징하는 이곳은 사실상 무관심속에 방치되면서 훼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송악산 외륜에 구축된 일본군 동굴진지 내부에 계단시설이 잘 남아있다.

송악산 해안 동굴진지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행 선착장이 있는 송악산 산이수동 해안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특공기지였다. 일제는 1945년 2월을 전후한 시점부터 제주도 해안 5곳에 자살특공기지 구축에 들어갔다. 특공기지가 들어선 곳은 송악산과 서우봉, 수월봉, 일출봉, 삼매봉 등 5곳. 이 가운데 수월봉 일출봉 삼매봉 등은 진양대기지로 만들어졌으며, 서우봉 역시 구조나 규모로 볼 때 진양대기지로 여겨진다.

송악산 해안은 어떤 용도로 구축됐을까. 문헌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회천(回天·카이텐)기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내 다른 특공기지와는 차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송악산 해안 동굴진지는 조사 결과 특공정 격납용 등으로 구축된 갱도 13곳과 벙커 2곳 및 해안절벽의 갱도 1곳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자살특공병기인 회천을 발진시키기 위한 유도로 시설이 해안 조간대상에 1곳 남아있다. 이 유도로 시설은 표면에 레일자국과 침목흠 흔적 등이 뚜렷하다. 회천기지 유도로 시설로는 유일하다는 점에서 일본군 군사시설 구축과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현장으로 꼽힌다.

그렇지만 송악산 해안 동굴진지의 관리실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거의 대부분 동굴진지가 자연적 인위적 요인에 의해 훼손되는 등 몸살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해안 침식 활동으로 절벽층 응회환 덩어리가 떨어져 내리면서 동굴진지 길이가 짧아지거나 입구가 무너지는 등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자연적인 요소뿐 아니라 송악산 진입도로로 차량진입이 빈번히 이뤄지고, 최근에는 산책로가 개설되는 등 인위적 요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굴진지 내부 환경 또한 벽면이 떨어져 내리거나 사람들의 무분별한 출입으

로 인해 훼손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송악산 외륜 내부 통로가 송이층이 떨어지면서 좁아지는 등 점차 훼손되고 있다.

송악산 외륜 동굴진지

학술조사를 통해 밝혀진 송악산 외륜 동굴진지 규모는 동굴식으로 굴착된 갱도 13곳에 전체 길이가 1,433m에 이르는 초대형이다. 오름 전체적으로는 가마오름에 이은 두 번째로 긴 규모임이 밝혀졌다.

또한 오름 사면에는 출입구가 41곳(입구 막힌 곳 2곳 포함)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내 동굴진지 가운데 출입구 수가 가장 많다. 오름 사면이 온통 벌집처럼 구멍이 송송 뚫린 형국이다.

송악산 외륜 동굴진지 가운데 길이가 가장 긴 것은 '동굴진지1'의 978m로 거의 1km에 가깝다. 이 동굴진지는 출입구만도 25곳으로 파악된다. 동굴진지 내부는 주통로를 따라 출입구가 나뭇가지처럼 연결된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송악산 외륜 동굴진지의 구조와 규모 등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곳에는 어떤 부대가 주둔했을까. 당시 일본군 진지구축 상황을 보여주는 '일본군제58군배비 개견도 제주도'에는 송악산 일대가 전진거점진지로 나타나 있다. 즉 송악산 외륜 동굴진지는 일본 육군이 구축한 전진거점진지임을 알 수 있다. 태평양전쟁 당시 제주 서남부에는 일본군 제111사단 1만2천여 병력이 주둔했었고, 송악산 외륜에도 그 예하 병력이 배치돼 대규모 진지를 구축한 것이다.

하지만 송악산 외륜 동굴진지의 내·외부 환경은 극히 불량하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동굴진지 입구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등 장기적으로는 함몰이 우려되는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개별 접근보다 종합정비계획 세워야

송악산 해안 및 외륜 동굴진지는 일본군이 제주도에서 전개하려던 해상특공작전과 결7호작전의 실체를 보여주는 현장이자 전쟁시설물이다. 진지구축을 위해 제주도민 뿐 아니라 다른 지방 사람들까지 강제 동원된 아픈 역사현장이기도 하다.

이 일대는 반경 1~2km 일대에 역사·지질자원 및 일제강점기와 태평양전쟁 관련 다양한 시설이 분포하고 있어서 일제 침략상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국토 최남단 마라도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국내외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동굴진지는 정비 보존대책을 마련하고 역사교훈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태평양전쟁 관련 시설이라는 점에서, 또한 일제의 침략상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